

진
허

김극민 저

평생을 땅에 붙어 살면서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늘이었다.
 그 하늘로 그는 뚝뚝 떠오르고 있었다.
 어느때부터 무슨 연고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편장 기분만은 좋았다. 내가 언제 이렇듯 가벼워진적이 있었던가.
 웅모라도, 아니 티끌이라도 이토록 가벼울수는 없으리라.
 하늘은 그저 높기만 했다. 이렇게 올라가다간 줄 끊긴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함수도 있지 않겠는가...
 야니, 끊어졌지. 아이적에도 자봉우나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얼마나 꾸었다고... 오래지 않아 급작스레
 주락하면서 꿈에서 깨어날것이다.
 텅 빈술로만 알았던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장편소설

진 허

김극민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김룡길
책임교정:김해연
기술설계:엄길호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真虚: 朝鲜文 / 金克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7

ISBN 978-7-5449-0649-4

I. 真… II. 金…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1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26988号

真 虚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2.5 字数: 3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49-4 (民文)

版次: 2009年7月第1版

2009年7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하늘이었다.

평생을 땅에 붙어 살면서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늘이었다.

그 하늘로 그는 둥둥 떠오르고있었다.

어느때부터 무슨 연고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짜장 기분만은 좋았다. 내가 언제 이렇듯 가벼워진적이 있었던가. 흥모라도, 아니 티끌이라도 이토록 가벼울수는 없으리라.

하늘은 그저 높기만 했다. 이렇게 올라가다간 줄 끊긴 연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꿈이겠지. 아이적에도 지붕우나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얼마나 꾸었다고... 오라지 않아 급작스레 추락하면서 꿈에서 깨여날것이다.

텅 빈줄로만 알았던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법사님, 저자를 좀 보십시오. 자기가 죽은줄은 모르고 안방에서 꿈이나 꾸고있는것처럼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생사의 법리를 모르고 죽는 인생이 얼마인데 새삼스레 가소롭다 하는거야?”

뭐라구? 누가 죽었다구? 설마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아니겠지. 내가 왜 벌써 죽는단 말인가? 그럭저럭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 환갑을 넘기지 못했다. 비록 당뇨병을 앓고있지만 눈이 멀

거나 발이 썩는 합병증까지는 오지 않았다. 술도 거침없이 마시고 담배도 걸싸게 피우지만 그렇다고 급살할수야 없지 않은가. 그는 말소리가 들려오는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군가 다가오는듯했다.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승은 우곡이라 하옵는데…”

“우곡이라? 어디서 듣던 이름 같은데…”

“또 잠꼬대를 하시는군.”

“스님은 읍내와 고개 하나 사이 둔 자그마한 산골마을에 계시지요. 돌담을 두른 전통가옥인데 솜을대문에 ‘우곡정사’란 현판이 걸려있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그 마을앞에 있는 판넬에서 품팔이를 하고있습니다.”

“오-라, 이제 보니 지난밤 우리 집에 와서 야료를 부리던 중국동포구나.”

“야료라니? 여보시오 스님, 말씀 좀 삼가하십시오.”

“야료가 아니면 무엇인가? 밤중에 술에 취해서 남의 집 대문을 팡팡 두드리고…”

“불문은 중생을 구제하는 곳이라 믿고 고민거리나 좀 풀어보려고 찾아왔는데 왜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셨소?”

“허허, 적반하장이라더니…”

“내가 도둑놈이란 말이요?”

“맑은 정신에 찾아오라구 몇번이나 말했나? 내 권고를 듣기는 고사하고 ‘은 세상이 다 취하고 나만 취하지 않았다’라구 허

튼소리를 쳤는지.”

“히튼소리라니? 타마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중국어말로 제밀할 놈이란 뜻이다.”

“예끼 이놈, 여기 진허법사님이 계신다. 어느 존전이라구 감히 불공설화를 늘어놓는거야?”

“진허가 다 뭐냐? 부처님앞이라두 나는 할 말은 다한다.”

“너석이 분명 술 처먹구 죽었구나.”

그가 뭐라고 응변하려는데 주위가 흰해지면서 누군가 다가오는듯했다. 형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거룩한 기품이 서려있어 그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황송해졌다.

“혹시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진허다. 부처는 아니로되 일찌기 우주적인 섭리를 깨우친바가 있어 경계를 임의로 드나들고있노라.”

법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마냥 은은했다.

“법사님, 제가 죽었다는게 사실입니까?”

“죽은것이 서러우냐?”

“아닙니다. 서럽다기보다 왜 죽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살았던지는 알고있느냐?”

“그건...”

“넌 도대체 누구냐?”

“김준이라고 합니다.”

“네가 그 이름이냐? 아니면 그 이름이 너냐?”

“네? 묻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중국동포입니다. 불법체류중인데…”

“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삶에 대한 집착은 여간 아니구나.”

“아닙니다, 법사님.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곡이 참견했다.

“보아하니 나살이나 먹은 사람 같은데 주책머리없이 술주정을 부리다니… 그게 사람답게 사는건가?”

준이는 발끈했다.

“예끼 이놈, 넌 목탁을 쳐 번뇌를 쫓는다지만 난 술로써 번뇌를 푼다. 너 같은 중놈한테서까지 중국동포라고 무시당할줄은 몰랐다. 중국동포인데 어쨌단 말이냐? 고국이라고 찾아와서 뭘 공짜로 얻어가지려고 보채거나 한단 말이냐? 너희들이 죽어도 못 간다는 3D업종에서 더우기 각박하기 짝이 없는 로임을 받으면서 역축처럼 부름을 당하고있지 않느냐? 자기 동포를 차별시키는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더냐?”

법사가 언성을 높였다.

“이놈, 분주하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거라. 너 중국에서 무슨노릇을 했더냐?”

“청년시절에는 김체호에 내려갔고 그후엔 줄곧 중학교에서 선생노릇을 했습니다.”

“‘김체호’라는건 무슨 늙은 이름이냐?”

“아니, 저… 그런게 있었습니다. 모택동시대에 지식청년들이 로동인민의 재교육을 받으러 농촌에 내려가서 한가마밥을 먹었는데…”

“불법은 언제 접했더냐?”

“저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유물주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늘그막에 그저 개처럼 되었습니다.”

“이놈, 너 참 말투가 상스럽구나. 그런 말투로 어떻게 학생을 가르쳤느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젠장! 법사님은 도대체 년세가 얼마길래 나보구 이놈저놈 합니까?”

법사가 허허허 크게 웃었다.

“너 내 나이를 물었더니? 거치장스러운 육신을 벗어버린 후부터 내 나이는 우주의 생멸과 함께 한다… 우스운 놈 같으니라구.”

우곡이 측은하다는듯이 말했다.

“자네 그렇게 격한 소리만 하는걸 보니 필경 로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양이군. 판넬사장 박씨는 나와 한고향이네. 자네 일찌감치 나를 찾아왔더라면 로임을 제대로 받을수 있었겠는데…”

“뭐라구? 이놈아, 내가 그까짓 돈 몇푼때문에 속에서 울화가 터번지는줄 아느냐? 이놈을 그저 단매에…”

그는 불문곡직 우곡이한테 달려들려고 했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몸뚱이가 없었고 우곡이한테는 형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놈들아, 령계에 와서까지 티각태각 싸움질이냐?”

“저는 본래 례의를 지키려구 했는데 저 우곡인지 쇠귀신인지 하는자가 먼저 걸구들었습니다.”

“야! 이 되놈 같은 녀석아. 네놈이 먼저 나한테 ‘타마디’라구 욕설을 퍼붓지 않았나?”

“되놈이라니? 예끼 이놈, 누가 뭐라 하든 나 어엿한 배달민
족의 후손이다.”

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만하지 못할가? 너 중국에서 왔단 놈은 무슨 원한이 그
리 많아 죽을등살등 모르고 발광하는거냐?”

“아니, 발광이라니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법사님두 저 너
석과 한통속입니다그려.”

우곡이 낮은 목소리로 쑥닥거렸다.

“그저 우연히 술에 취한 놈이 아니고 진짜… 진짜로 미친 놈
입니다. 법사님, 더 큰 욕을 보기전에 자리를 피함이 어떠하신지
요? 천자도 술 취한자를 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저자가 비록 행실이 어수선하고 말투가 거칠지만
선근(善根)은 있어보인다. 내 저자하구 할 말이 있으니 너는 세
상으로 내려가거라.”

“네.”

우곡이 자취없이 사라지는듯했다. 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
로 말했다.

“너 죽었다는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구나. 술
먹고 그리 되었으니 자업자득이니라.”

그는 화가 치밀었다.

“여보시오, 편들편들 살아있는 사람을 왜 자꾸만 죽었다고
밀어붙이는겁니까? 내가 진짜로 죽었다면 어떻게 사유를 하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삶의 관성이니라. 좀 지나면 무주고혼이 되여 망망한 령계
를 속절없이 떠돌다가 그대로 사라질것이니라.”

내가 정말 죽었던 말인가. 자기도 언젠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이렇듯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죽어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저승길이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속담에 말뚝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했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했다. 삶을 바라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 아닌가. 너는 어찌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귀중하게 건사하지 못하고 이렇듯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가...

생전에 그는 죽은후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천당이나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평소에 적선한 일도 없었으니 천당은 자격 미달일 것이고 막로동판에서 술 처먹고 덜컥 죽어버렸으니 영남 없이 지옥에나 끌려갈 것이다. 18층지옥 어딘가에 전문 술주정뱅이를 취제하는 부서가 있다던데... 쟁쟁, 죽은 놈이 툽에 잘리우면 어떻고 매돌에 갈리우면 어떻고 불에 그슬리면 또 어떻단 말인가... 악형은 두렵지 않았다. 그저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없이 아쉬울 뿐이었다.

“너 무엇이 억울해 그러느냐?”

“그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뭐 두고 가기 아까운 것이라도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워낙 쌓아놓은 재물도 없고 명예도 지위도 없는 놈이니 까요.”

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천수만의 령들이 허공에 떠오르고 있다. 죽음의 리유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모두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령들이니라. 유독 너의 령만이 범상치 않은 빛갈을 내비치므

로 래력을 소상히 묻게 되었노라. 천기(天機)는 예리한데 어이 하여 인생이 다하도록 무명(無明)에서 헤매고있느냐? 아직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했음을 가없이 여겨 내 너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고저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번거로운 일상에 집착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얻도록 하라.”

이어 범사님은 무엇이라고 중언부언했지만 한마디도 알아 들을수 없었다. 갑자기 주위가 칠혹처럼 어두워지면서 그는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어찌도 빨리 떨어지는지 어지럼증이 나고 숨이 콕콕 막히었다. “악!” 하는 비명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2

누군가 세차게 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준이는 눈을 떴다. 거무튀튀한 얼굴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아저씨, 무슨 잠을 그렇게 자시우? 온밤 헛소리를 치면서... 아저씨땀에 나 잠을 설치였수다.”

멀리서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또그르르...

준이는 그제야 여기가 판넬사무실이고 자기를 깨운 사람이 콕씨라는것을 어슴푸레 깨달았다.

“아저씨, 그 년세에 술 엄청 하시는군. 그러다가 몸을 망가뜨리면 어떡할라구? 우리처럼 막로동으로 벌어먹는 사람에겐

몸이 밀천이라니께…”

“……”

준이는 머리맡에서 담배부터 찾았다. 서너가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또 실수를 했구나. 젊은이들앞에서 추태를 부리다니… 후회도 후회지만 야릇한 통쾌감이 몸에 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엇인가 가증스러운것을 치고 박고 때려부신듯 결국 쳐부신것이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건만 그래도 가슴이 후련했다.

엿저녁에 그는 곽씨, 리씨과 함께 대청에서 월드컵경기를 시청했다. 한국선수가 미국팀의 골문을 터뜨리자 붉은악마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했다. 준이도 열광의 기분에 감염되어 저도 모르게 머리를 내저으며 응원가를 따라불렀다.

“어-코리아, 어-코리아… 짬짬 짬짬 짜아—”

하지만 곽씨는 조는듯마는듯 덩덤한 표정이었고 리씨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 준이는 혼자서 주책머리없이 떠들어댄것이 민망스러웠다.

“자네들은 기쁘지 않은가? 저 꼴이 어떤 꼴인데…”

리씨가 비양거리듯 말했다.

“이 아저씨 보기와 달리 무척 감정적이네… 그런데 아저씨, 중국팀이 이번 월드컵에 어렵사리 본선에 진출해가지구 소조경기에선 너무 맥이 없이 무너지더구만? 중국팀이 탈락하니 아저씨 심정은 어떠하시우?”

준이는 슬그머니 약이 올랐다.

“그런데… 자네는 왜 그걸 물어보는가?”

“궁금하니까… 하하하.”

준이는 대뜸 언성을 높였다.

“임마, 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아따, 이 아저씨가... 우연히 한마디 물었는데 소리는 왜 질러요 소리는?”

“네가 넘어졌을 때 누가 히죽거리면서 심정이 어떤가고 물으면 너 기분이 좋겠느냐?”

“이 아저씨가... 너무 열정적으로 한국팀을 응원하니까 한국편인줄 알았더니 속은 완전히 중국편이네?”

“임마, 나한테는 한국이 할아버지 같은 존재구 중국은 내가 나서 자란 모국이다. 내앞에서 중국을 비웃지 말아, 기분이 나쁘니까...”

리씨가 발끈했다.

“이 아저씨가 너무 심각한거 아니야 이거?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다구...”

리씨는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텔레비에 눈길을 돌렸다. 준이도 다시 텔레비를 바라보았으나 한번 망가진 기분은 여전히 짊어질까만 했다.

축구경기를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룬 일이 이번만은 아니었다. 80년대 초반, 그가 농촌중학교로부터 연길시 모 중학교로 갓 전근해왔을 때였다. 월드컵예선이었던지 아시아컵이었던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원들이 회의실에서 남북축구팀의 축구경기를 시청하고있었다. 한국선수가 선물을 넣고 운동장을 달아다니며 세레모니를 펼치는데 앞에 앉았던 녀교원이 발딱 일어나면서 욕설을 퍼붓는것이였다.

“저 남조선새끼, 수세미머리를 해가지구 무슨 지랄이야? 콧뒤어나져라!”

준이는 저도 모르게 발각 내쏘았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랄’이라니요?”

녀선생이 머리를 뒹 돌리며 준이를 노려보았다.

“미술선생님은 어느 편입니까? 예? 어느 편입니까?”

“내사 어느 편이든 그쪽에서 말씀 좀 문명하게 하십시오.”

녀선생은 몸을 부르르 떨었고 눈에서는 불이 이글거렸다.

“누구를 교육하자구 듭니까? 예? 누구를 교육하자구 드는가?”

녀선생이 분통을 터뜨릴만도 했다. 본과대학출신이며 공산당원이며 중점과목인 수학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통신대학출신이며 비당원이며 비인기과목인 미술을 가르치는 보잘것없는 교원한테 꼬집혔으니 어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는가. 다른 교원들이 그만 떠들라고 항의하자 녀교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에서 나가버렸다. 어쨌든 그후부터 준이는 녀교원과 앙숙이 되었고 처처에서 불리익을 감수해야 했다…

곽씨는 꼬덕꼬덕 졸고있었고 리씨는 여전히 찌뿌둥한 얼굴이었다. 리씨는 서른아홉이라 했다. 본래 서울 어느 회사의 사무직이었는데 금융위기때 밀려나와 지금까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작년부터 여기에서 일하고있다는데 체력이 약해서 월급도 7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있었다. 가정을 서울에 두고있어 저녁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다. 리씨는 여태까지 준이가 중국동포라고 로골적으로 야비한 태도를 취한적이 없었다. 오늘일도 따지고보면 얼마든지 톤담으로 얼버무릴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준이는 자기가 한국에 와서부터 마음이 비좁아지고 신경도 엄청 예민해지고있음을 느꼈다. 이래서는 안돼. 사람이 대범해야지. 준이는 자기의 실수를 술로 미봉하려고 들었다.

“리씨, 한국팀승리를 축하해서 오늘저녁 내가 한턱 내지. 배달아가씨한테 핸드폰을 치게. 소주 세병, 돼지머리안주에 ‘말보루’ 한갑…”

얼마 되지 않아 배달아가씨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왔다. 광씨는 몸을 아끼느라고 술을 얼마 하지 않았고 리씨는 술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주량이 변변치 못했다. 그러다보니 거의 준이 혼자서 취토록 마신것이다. 주절주절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은것 같았다.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바깥으로 나간듯했다. 목적없이 헤매다가 길건너 마을에 올라가 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악담패설을 늘어놓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새벽벽인가 괴상한 꿈을 꾸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던지…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대청으로 나왔다. 리씨가 후라이팬에 계란을 지지고있었다.

“아저씨, 어제밤 어디 갔다 왔어? 배달아가씨 젓가슴을 보더니만 혹시 읍내 유흥업소로 간게 아니여?”

“너석이 아무 소리나…”

팔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지. 누가 그렇게 체신머리없이 술주정을 하라 했어…

리씨는 저쪽 방에서 혼자 자는데 불면증이 있어서 준이가 밤중에 바깥에 나갔다 온 사실을 모를리 없다.

준이는 뒤가 급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 변기에 앉으니 지난밤 꿈의 정경이 어슴푸레 떠오르기 시작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고… 웬 스님과 말다툼을 했고… 진허법사라는이와 많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외에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 왜 생똥같이 그런 꿈을 꾸었을까? 나의 일상은 불법이나 스님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아마 새벽마다 들려오

는 저 목탁소리때문에 그런 꿈을 꾸 모양이다.

대청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먹구 어떻게 일해? 젠장!”

“아따, 식성에 맞지 않으문 저절로 해 자실거지… 여긴 주방장이 따로 없다니까.”

“씨팔, 이따위 판넬은 처음 본다. 일찌감치 때려치워야지.”

준이는 대청으로 나왔다. 식탁에는 어제점심에 먹다 남은 밥과 김치, 장아찌 그리고 리씨가 금방 지저놓은 계란볶음 한접시가 달랑 놓여있었다. 여기서는 사장부인이 일꾼들의 식사를 점심 한끼만 책임졌다. 일용직들은 저녁에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사무실에서 주숙하는 고정인부 세 사람은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저절로 해결해야 했다. 리씨는 아침식사를 보통 우유 한컵에 계란볶음으로 에웠고 준이도 묵은밥에 김치쫄각으로 대수 요기를 해왔다. 억대우같은 광씨가 그들처럼 먹다가는 “밀천”으로 여기는 몸이 빠져내지 못할것은 뻔한 일이었다. 광씨는 싱크대 밑에 있는 박스를 와락와락 헤치고 라면 두봉지를 꺼내여 큰 그릇에 담고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 계란 두개를 터쳐놓고 저가락으로 휘휘 젓고는 걸신 들린 사람마냥 후룩후룩 먹어대기 시작하였다.

식사를 금방 끝내자 박사장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몸집이 야무지게 생긴 사십대 중반의 사나이였다. 얼굴은 함부로 생긴축이 아니었으나 그 얼굴에서 지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아침에 인부들을 처음 보면서도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다. 박사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탁을 한번 훑어보고는 쏘파에 털썩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그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있어 공사장 저 먼곳까지 살살이 살펴볼수 있었다. 준이는 장갑을 주어 끼고

밖에 나섰다. 차소리가 나더니 승합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일용직 인부 일여덟명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작달막한 키에 낡은 군복을 입은 “아우”가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준이한테 “충성!” 하고 군례를 붙이였다.

“형, 왜 두눈이 통통 부었어? 옳아, 잊저녁에 형수님생각이 나서 눈을 못 붙였다 이거지? 하하하…”

너석은 웃을 때마다 성성이처럼 아래우 이몸이 별정계 드러난다. 이제 갓마흔이라는데 준이를 “형”이라고 부르는데는 그로서야 알파한 속셈이 있었다. 준이가 중국에서 왔다고 얼렁뚱땅 신부감이나 소개받을가 해서 치근거리는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파키스탄에서 온듯한 왜소한 젊은이가 차에서 내렸다. 사무실에서 나와 인부를 점검하던 박사장이 껍 소리를 질렀다.

“어이, 너 왜 또 바라왔어? 일숨씨가 통 숙맥이던데… 야! 너 바라가라. 내가 외국놈 돈벌이 시키는 사람이야?”

젊은이는 본래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서양사람들 본새로 어깨를 으쓱하며 팔을 벌려보았다. 박사장은 식지로 젊은이를 겨누었다가 손가락을 꺾 펴서 좌우로 흔들고는 이어 국사발의 파리를 날리듯 손을 훌훌 내저었다. 젊은이는 머리를 기우뚱하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승합차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3

축구장 절반만한 공지에 판넬, 오비끼, 샷보드, 철아시바 따